

# 가계의 자녀관련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 : 보령 베이비 패널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나 종 연(서울대 부교수) · 한 경 혜(서울대 교수) · 장 미 나(서울대 연구원)  
이 해 랑(서울대 석사과정) · 윤 정 선(서울대 석사과정) · 이 진 명(서울대 박사과정)

개인과 가족, 사회의 경제적, 비경제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계의 자녀 관련 지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의 자녀관련 지출의 패턴과 특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 집단 및 자녀 연령 코호트에 따른 자녀관련 지출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계의 자녀관련 지출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담 정도가 다른 지출 비목과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3단계의 조사과정을 거쳐 구축된 보령 베이비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패널의 소득 및 지출 금액, 조부모 관련 지출 비용, 그리고 노후대비 지출 비용에 대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2,187명을 대상으로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령베이비패널의 자녀 관련 지출의 절대적인 금액은 소득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평균 총 지출에서 자녀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물리학의 Weber-Fechner 법칙을 적용하여 가계의 자녀관련 지출 결정은 절대적 액수보다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목별 자녀관련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비 부문의 경우 소득집단 별 지출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녀관련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의 차이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자녀 관련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집단이 영아기 자녀를 둔 집단에 비해 부담을 유의하게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관련 지출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상 소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관련 지출의 절대적 액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관련 지출과 조사 대상자의 노후 대비 금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 관련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와 노후 대비 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088$ ,  $p<0.01$ ).

이상의 결과, 가계는 총 지출에 대한 자녀 관련 지출의 비율을 절대적 금액보다 더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관련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계가 필요로 하는 다른 지출 항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 독립 후의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계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배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